

## 카를로 콜로디 (1826~1890)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아동문학가로, 본명은 Carlo Lorenzini이다. 훗날 필명으로 쓰게 된 ‘콜로디’는 그가 자랐고 그의 문학에 많은 영감을 준 곳의 지명에서 비롯되었다. 그를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아동문학 작품의 작가로만 알고 있지만, 콜로디는 일찍이 이탈리아 독립전쟁에 자원 참전한 바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 풍자적인 신문 ‘람피오네(Il Lampione)’ 창간에 참여하기도 했다. 초기 작품에는 그의 이러한 성향이 다분히 드러난다. 1856년 소설 <바포레 In Vapore>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 즈음에는 정치 풍자적인 희곡과 단편소설을 많이 집필했다. 1875년, 그는 아동문학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념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쾌활하고 악동스러운 인물을 만들어 내는 데 빠져 들었다. 1880년 작가의 최고 작품인 <피노키오>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1883년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되어 이탈리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그 외 <잔네티노 Giannettino>, <미누촐로 Minuzzolo> 등의 동화를 남겼다.

1890년 콜로디는 피렌체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피노키오의 모험>은 그의 사후에 세계적으로 큰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카를로스 콜로디 재단이 세워져 교육을 장려하고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고 있다.

## 피노키오 Pinocchio

제페토가 나무로 소년 모양의 인형을 깎고 있다. 깎는 내내 인형이 살아 있는 느낌이 들더니만, 마침내 완성되자 정말로 움직이는 개구쟁이 소년 인형이 된다. 제페토는 이 인형을 피노키오라고 이름 짓고, 아들로 삼아 학교에 보내 줄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 장난꾸러기

피노키오는 학교에 갈 마음이 전혀 없다. 가난한 제페토가 외투를 팔아 교과서를 사서 학교에 보내지만, 피노키오는 가는 길에 인형극장에 정신이 팔려 학교는 까맣게 잊고 만다. 인형극장에서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피노키오는 동정심 많은 인형극장 주인이 제페토에게 갖다 주라고 한 금화 다섯 닢을 들고 또 다른 모험을 떠나는데...

말썹꾸러기 피노키오가 온갖 일을 겪은 끝에 착해진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유명한 캐릭터로, 1883년 발표된 <피노키오 Pinocchio>를 통해 탄생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다수의 영화, 만화에서 사랑받고 있다.

## 피노키오

### [제 1 장] 한 인형 이야기

p. 12-13 이 이야기는 특이한 소년에 대한 것이다. 그가 왜 그렇게 특이했냐고? 그는 평범한 아기로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목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목수의 이름은 제페토였다. 제페토는 나무로 장난감을 깎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제페토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는 멋진 인형을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작은 소년처럼 보일 것이었다. “나는 그 애를 피노키오라고 부를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건 좋은 이름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우리는 함께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거야.”

p. 14-15 제페토는 머리부터 조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카락, 이마 그리고 눈을 조각했다. 눈이 제페토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 내가 점점 늙는구나.” 그가 생각했다. “내가 상상을 하고 있네.” 다음에 제페토는 코를 깎았다. 코가 더 길어졌다. 제페토는 코를 잘랐다. 코가 다시 자랐다. 제페토는 포기했다. 그는 입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입술이 움직였다. “아, 그거 간지럽네.” 피노키오가 말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제페토는 생각했다. 그 노인은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는 팔, 몸통, 그리고 다리를 끝마쳤다.

p. 16-17 갑자기 인형이 기지개를 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코를 꼬집었다. 제페토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었다. “너 살아 있구나!” 제페토가 외쳤다. “물론이죠.” 피노키오가 말했다.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노키오가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했다. 제페토는 결심했다. “그만해, 피노키오. 지금은 춤출 시간이 아니야. 내가 널 내 이들로 입양하겠다. 내일 난 널 학교에 보낼 거야. 넌 착한 소년이 되어야 해.”

p. 18-19 하지만 피노키오는 착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발로 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피노키오는 거리를 따라 뛰어갔다. 제페토는 필사적으로 그를 뒤쫓았다. “그를 멈춰세워요! 그를 멈춰세워요!” 그는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 우스운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가 인형을 뒤쫓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엄청 웃었다. 마침내 경찰이 피노키오를 보았다. 그는 피노키오의 긴 코를 잡았다. 그는 피노키오를 제페토에게 돌려 주었다.

p. 20-21 제페토는 피노키오의 목을 잡았다. 그는 그 인형을 거칠게 흔들었다. “우린 이제 집에 갈 거야.” 제페토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널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겠어.” 피노키오는 울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제페토는 잔인하게 굴고 있어.”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저 불쌍한 소년을 때릴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경찰은 제페토의 팔을 붙잡았다. “난 할아버지를 감옥에 넣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 불쌍한 소년을 해칠 수 있어요. 아침에 보내 드리지요.” 경찰은 제페토를 감옥으로 데리고 갔다.

## [ 제 2 장 ] 힘들게 얻은 교훈

p. 24-25 피노키오는 깡충깡충 뛰었다. 그의 눈물은 사라졌다. 그는 기쁘고 자유로웠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와 들판으로 뛰어다녔다. 마침내, 그는 제페토의 집에 도착했다. 피노키오의 배가 이상했다. “이게 배고픈 게 틀림없어.” 그가 생각했다. 그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먹을 것이 없었다. 이제 밝은 어두웠다. 피노키오는 배도 고프고 외롭기도 했다. “귀뚜라미.” 벽에 있던 귀뚜라미가 말했다. “누구야?” 피노키오가 말했다. “나야, 말하는 귀뚜라미.” 그 곤충이 말했다. “난 여기에서 평생 살았어.”

p. 26-27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피노키오가 말했다. “네가 떠났으면 해.” “좋아.” 귀뚜라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사실을 말해 줘야겠어. 어린 소년들은 가출해서는 안 돼. 나이가 더 들면 후회하게 될 거야.” “너에게 한마디 해줄게.” 피노키오가 말했다. “내일 아침 난 이 집을 떠날 거야. 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난 뛰고 나무에 오르고 놀고 싶어.” 귀뚜라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넌 당나귀가 될 거야. 모두 너를 바웃을 거야.”

p. 28-29 피노키오는 화가 났다. 그는 귀뚜라미에게 망치를 던졌다. 그것은 귀뚜라미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귀뚜라미는 무서워서 필쩍 뛰었다. 순식간에 귀뚜라미는 벽에 있는 구멍으로 도망갔다. 피노키오는 혼자였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귀뚜라미의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배고프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어두웠다. 피노키오는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저는 배고픈 소년이에요.” 그가 말했다. “저에게 음식 좀 주시겠어요?”

p. 30-31 집주인은 창문을 열었다. 그는 피노키오에게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쏟았다. 이제 피노키오는 배고프고 춥고 물에 젖었다. 천천히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불을 피웠다. 그는 불 옆에 자신의 발을 두었다. 그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제페토가 집에 왔다. 그는 현관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페토는 시끄럽게 노크했다. 피노키오가 잠에서 깨었다. 그는 일어하려 했지만 넘어졌다. 그의 두 발이 불에 타버렸다.

p. 32-33 “피노키오야, 너 거기에 있니?” 제페토가 외쳤다. “예, 아버지.” 피노키오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 걸을 수 없어요.” 제페토는 문을 부셔서 열었다. 그는 바닥에 있는 피노키오를 발견했다. 살며시 그는 피노키오를 들어올렸다.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껴안고 울었다. “자, 자.” 제페토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새 발을 만들어 줄게.”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위해 새 발을 깎았다.

그는 그것을 피노키오의 다리에 나사로 고정시켰다. 피노키오는 새것과 다름없었다. “난 이제 착한 소년이 될 거예요.” 피노키오가 말했다. “전 학교에 갈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게 될 거예요.”

p. 34-35 제페토는 미소 지었다. “우선 너에게 교과서를 사줘야겠구나. 난 눈이 많지 않단다.” 제페토는 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가서 한 시간 후에 돌아왔다. 그는 손에 새 교과서를 들고 있었다. “네 거야.” 제페토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피노키오가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 외투는 어디 있어요?” “아, 너무 더웠잖니. 팔아 버렸단다.” 제페토가 말했다.



피노키오는 울면서 제페토를 꺼안았다.

### [ 제 3 장 ] 피노키오, 속아넘어가다

**p. 38-39** 학교에 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사람들 한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인형극장 밖에 줄을 서 있었다. 피노키오는 공연을 보고 싶었다. 그는 표를 살 돈이 없었다. 그는 동전 몇 푼에 자기 교과서를 팔았다. 피노키오는 무대에 있는 많은 꼭두각시를 보았다. '나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 그가 생각했다. 피노키오는 무대에 뛰어올랐다. 다른 인형들은 그를 보니 기뻐했다. 그들 모두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멈췄다. 그들은 피노키오 주위로 모여들었다. 관중은 화가 났다. 그들은 왜 공연이 중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p. 40-41** 꼭두각시 주인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빨개졌다. "왜 너 공연을 중단시켰나?" 그는 소리쳤다. 피노키오는 사과를 하고 무대를 떠났다. 그는 관중석으로 합류했다. 그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완전히 잊어 버렸다. 공연은 계속되었다. 나중에 피노키오는 다른 인형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꼭두각시 주인은 저녁을 요리했다. "불을 지피기 위해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해." 그는 말했다. 그는 두 명의 꼭두각시 병정을 보았다. "그 새 인형을 데려와라. 그는 좋은 장작감 같더구나." 병정들은 피노키오를 붙잡았다.

**p. 42-43** 피노키오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발이 불났던 때를 기억했다. "저를 불 속에 던지지 말아 주세요." 그는 말했다. 꼭두각시 주인은 피노키오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는 병정들에게 다른 꼭두각시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안 돼요!" 피노키오는 말했다. "그를 태우지 마세요." "난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가 있어야 해." 꼭두각시 주인이 말했다. 피노키오는 똑바로 섰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네요. 만약 당신이 우리들 중 한 명을 불태워야 한다면 저를 태우세요." 꼭두각시들 모두가 울었다. 병정들조차도 슬피보였다. 꼭두각시 주인은 재채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정심을 느끼면 재채기를 했다. 그는 정말 못된 사람은 아니었다.

**p. 44-45** "네 아버지는 누구니?" 꼭두각시 주인이 물었다. "제페토요." 피노키오가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고 계실 게 틀림없어요." 갑자기 피노키오는 학교에 대해 기억났다. 그는 어떻게 제페토가 외투를 팔게 되었는지 꼭두각시 주인에게 말했다. 꼭두각시 주인은 가난한 제페토를 가엾게 여겼다. 꼭두각시 주인은 피노키오에게 금화 다섯 개를 주었다. "이것들을 아버지에게 드려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지금 떠나거라." 피노키오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p. 46-47** 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다. 여우는 다리를 저는 척했다. 고양이는 장님인 척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피노키오는 그들에게 자신이 부자라고 말했다. "난 새 교과서를 살 거야."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입으실 새 외투도." 그는 그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고양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나서 고양이는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장님이어야 했다. 여우가 신이 나서 말했다. "너 돈을 더 벌고 싶니?" 그가 물었다. "우리가 알려 줄게." 고양이가 말했다.

**p. 48-19** 두 마리의 동물은 피노키오에게 특별한 장소에 대해 말했다. 그곳은 경이의 들판이라고 불렸다. 사람들은 거기서 땅에 동전을 넣는다. 아침이면 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 나무에는 과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금화가 자랄 것이다. “금화 몇 개?” 피노키오가 말했다. “음, 예를 들면 네가 금화 한 개를 심는다고 해보자.” 여우가 말했다. “그 나무는 너에게 동전 500개를 줄 거야.” “난 금화 5개가 있어.” 피노키오가 말했다. “그러면 내가 몇 개의 금화를 갖게 되지?” 이것은 간단한 수학 문제였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알지 못했다. 여우가 대답했다, “음, 간단하지, 5 곱하기 500은 2,500이야.”

**p. 50-51** “금화 2,500개라고?” 피노키오가 의쳤다. “나 부자 되겠다!” 그 동물들은 오래 걸어야 하는 거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관에서 그날 밤을 묵었다. 여우와 고양이는 많은 음식을 먹었다. 피노키오가 계산을 했다. 금화 한 개의 비용이 들었다. “걱정 마.”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금화 2천 개를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자정에 떠나야 해. 해 뜨기 전에 금화를 심어야 하거든.” 피노키오는 자정에 잠에서 깼다. 여우와 고양이는 이미 없었다. 그들은 더 먼저 떠났다. 피노키오는 숲 속을 걷기 시작했다.

**p. 52-53** 갑자기 두 형체가 나타났다. 그들은 얼굴에 두건을 썼다. 그들은 실제로는 여우와 고양이였다. “네 돈을 내놔!” 여우가 말했다. 피노키오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그다지 빠르지 못했다. 도둑들은 피노키오를 잡았다. 피노키오는 재빨리 입에 금화를 넣었다. “입을 벌려.” 고양이가 말했다. 피노키오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동물들은 피노키오의 나무로 된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를 발부터 거꾸로 매달자.” 여우가 말했다. “그는 지칠 거야. 그러면 무거운 동전이 그의 입을 열게 할 거야.”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나무에 매달았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오기로 계획하고 떠났다.

#### [ 제 4 장 ] 장난감 나라

**p. 58-59** 점심 후에 피노키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다. “피노키오, 니니?” 그는 한쪽 눈을 떴다. 파란 요정이 그의 밑에서 있었다. 그녀는 새에게 밧줄을 끊도록 명령했다. 피노키오는 땅에 떨어졌다. “너는 나쁜 소년이었지.” 요정이 말했다. “너의 불쌍한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셔. 네 아버지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 요정은 피노키오를 자신의 성으로 초대했다. 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주머니에 금화를 넣었다. 성에서 피노키오는 그녀에게 여우와 고양이에 대해 얘기했다. “금화는 지금 어디에 있니?” 요정이 물었다. “잃어버렸어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다.

**p. 60-61**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피노키오의 코가 몇 센티미터 자랐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데?” 요정이 물었다. “근처 숲에서요.” 피노키오가 말했다. 그의 코가 더 길게 자랐다. 요정은 웃었다.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네 코가 자랄 거야. 그걸 기억해. 이것 또한 기억하렴. 네가 착하게 굴면 진짜 소년이 될 수 있어. 너는 정직하고 용감하고 너그러워야 해.”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서둘러 집에 가라고 말했다. 피노키오는 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그는 착해지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제페토는 그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p. 62-63** “이봐, 너는 왜 뛰고 있니?” 한 목소리가 물었다. 피노키오는 길가에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내 이름은 조셉이야.” 소년이 말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나랑 놀자.” “넌 뭘 기다리고 있니?” 피노키오가 물었다. “소년들이 잔뜩 탄 마차.” 조셉이 말했다. “그 마차는 매일 밤 자정에 들러. 그 마차는 장난감 나라로 가지.” 조셉은 피노키오에게 이 멋진 곳에 대해 말해 주었다. 소년들만 거기에 살았다. 그들은 온종일 즐겁게 놀았다. 학교나 선생님은 없었다. “난 집에 가기로 약속했어.” 피노키오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조셉과 함께 기다렸다. “나는 그냥 네가 떠나는 것만 지켜봐 줄게.” 피노키오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난 집에 갈 거야.”

**p. 64-65** 자정에 마차가 왔다. 그 마차의 마부는 친절해 보였다. “안녕, 소년들아.” 그가 말했다. “어서 타.” 스물네 마리의 당나귀가 마차를 끌었다. 당나귀들은 가죽 신발을 신었다. 많은 소년들이 마차에 타고 있었다. “우리랑 같이 가자.” 그들이 외쳤다. “하지만 내 아버지, 제페토...” 피노키오가 말했다. “넌 장난감 나라에서 언제나 행복할 거야.” 노는 광경이 피노키오의 마음에 가득 찼다. “좋아, 갈게.” 그가 외쳤다. 피노키오는 마차에 뛰어올랐다. 몇 주 동안, 피노키오는 재미있었다. 장난감 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했다.

**p. 66-67**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피노키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귀가 머리에서 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그건 당나귀 귀였다. 그는 조셉을 찾으러 갔다. 조셉의 귀도 당나귀 귀였다. 곧, 두 소년은 모두 당나귀로 변했다. 마부가 그들을 태우러 왔다. 그는 사악한 남자였다. 그는 장난감 나라로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당나귀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부는 그들을 팔았다. 그는 피노키오를 서커스단에 팔았다. 피노키오는 재주를 부리도록 훈련받았다. 만약 실수를 하면 그는 매를 맞았다.

**p. 68-69** 피노키오는 관중에게 말을 하려 애썼다. “도와주세요. 전 진짜 당나귀가 아니에요. 전 그냥 소년이라고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히-히! 히-히!”밖에 없었다. 관중은 그를 가리키며 웃었다. 피노키오는 말하는 귀뚜라미가 기억났다. ‘내가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는 생각했다. 공연 중에 피노키오는 다리를 다쳤다. 서커스 책임자는 그를 팔아 버렸다. 그의 새 주인은 악기를 만들었다. 그는 북을 만드는 데 당나귀 가죽을 사용했다. 그는 피노키오를 자신의 작업장에 데려갔다. 그것은 바다 위 절벽에 있었다. 피노키오는 북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도망쳐서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 들었다.

## [ 제 5 장 ] 상어에게 구조되다

**p. 72-73** 바닷물은 피노키오를 바꿔 놓았다. 그는 다시 꼭두각시 인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구조되지 않았다. 거대한 상어가 지나가고 있었다. 상어는 피노키오를 통째로 삼켰다. 상어의 배는 매우 컸다. 그것은 어둡고 축고 축축했다. 피노키오는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했다. “거기 누구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말했다. 피노키오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아버지!” 피노키오가 외쳤다. 제페토도 상어의 뱃속에 있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피노키오가 집에 오지 않자 걱정했다. 제페토는 많은 곳을 찾아 다녔다. 그는 피노키오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p. 74-75** 마침내, 제페토는 배를 탔다. 그는 피노키오가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배

는 폭풍으로 침몰했다. 상어가 제페토를 삼켰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피노키오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피노키오는 나무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상어의 배를 간질였다. 상어는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기침을 했다. 제페토와 피노키오가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뗏목은 그들을 해수면으로 쏘아 올렸다.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p. 76-77** 제페토는 늙고 병들었다. 피노키오는 그를 돌보았다. 낮 동안에 그는 학교에 갔다. 저녁마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는 바구니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는 개당 동전 몇 닢을 받고 바구니를 팔았다. 어느 날 밤, 피노키오는 꿈을 꾸었다. 파란 요정이 그에게로 왔다. “너는 정직하고 용감하고 너그러워서, 아침이면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피노키오는 잠에서 깼다.

**p. 78-79** 태양이 창문을 통해 밝게 빛났다. 피노키오는 거울을 보았다. 그는 진짜 소년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보세요!” 그는 외쳤다. “진짜 소년이 되었어요.” 제페토는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 제페토는 20년은 더 젊어보였다. “파란 요정이 아버지도 변하게 했어요.” 피노키오가 말했다. “소년이 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페토가 말했다. 착한 소년들의 집은 행복으로 가득하다.